

# 국민-바른 통합 토론회서 햇볕정책 강령 반영 '실전'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하태경(오른쪽부터), 정은천 최고위원 국민의원 이만주, 이동섭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정강정책(강령) 논의의 일환으로 토론회에서 2일 햇볕정책의 강령 반영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바른정당 정책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그 정신은 평가하되 현실 정책으로써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평했다. 최 소장은 이어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등의 대북정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도 진멸한다 우리 당이 합당하다고 하더라도 진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앞으로 추진하되, 퍼준 다거나 북한의 핵개발에 이로움을 주는 건 아니고 인도적 측면에서 서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정강정책에서 이게 빠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역설했다. 역시 통합파인 신용현 의원 역시 "햇볕정책 강령 포함이 안 된다고 할 건 아닌 것 같다"며 "햇볕정책은

로 인정하며 인권적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박 북한 탓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관성 없이 햇볕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오늘날의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통합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만주 의원이 "현재 (국민의당) 강령에는 햇볕정책은 없다. 다만 포용적 기조만 들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동섭 의원이 재차 "정강정책을 보면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맞섰다.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동교동계가 당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햇볕정책의 강령 포함 여부는 민감한 사항이다. 아울러 비교적 중립파로 분류돼온 박주선 국회부의장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햇볕정책은 단순히 반대파 대표격인 이른바 박·정·전(박지원·정동영·전정배)만의 문제로 끝나기엔 당내 다른 호남 의원들에게도 파급력이 큰 이슈다.

아울러 국민의당 당원 절반 가량이 호남에 포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때문에 안 대표 역시 이를 의식해 바른정당의 통합을 추진하며 스스로 "D정신 계승"이라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탈호남' 성격의 통합이라는 지적에도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어온 것이다. 결국 햇볕정책 이슈가 어떻게 다루지느냐에 따라 자칫 전당원투표로 어렵게 마련한 통합 동력은 재차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 바른정당 측 "햇볕정책 '공과' 존재...재검토해야"

## 통합과 이동섭 "햇볕정책 건드리면 수도권도 진멸"

책에 대한 개념을 (신당 강령에) 굳이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신당 강령에서 햇볕정책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세미나에서는 "햇볕정책은 옳고 그름을 떠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공(功)의 측면이고, D(김대중 전 대통령)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돕겠다', '흡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까 선한 의도로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김정일에 의해 배신당했다. 선한 의도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굳이 생각하면 과(過)"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부에선 즉각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통합파인 이동섭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없으면 호남이 없다. D를 호남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며

기존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비판 면도 있고 북한을 한 동포로 나라

## 靑 "MB 뒷조사 아니다"...임종석, 임태희에 설명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배경과 관련해 임태희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명박 정부 시절 비위를 캐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설명했다.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실장의 전 화통화와 관련해 "임종석 실장이 임태희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뒷조사를 위

해 (UAE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는 통화였다고 말했다.

임 실장의 UAE행은 MB의 뒤를 캐는 과정에서 UAE 왕실 자금을 들여다봤고, 이것이 발각되자 수습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통화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뉴스스

## 강기정·민형배·최영호, 영화 '1987' 나란히 관람

## 3자 연대, '삼발이론' 놓고 정치적 해석도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강기정(53) 전 의원과 민형배(56) 광산구청장, 최영호(52) 남구청장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한다.

강 전 의원과 민 청장, 최 청장은 오는 6일 오후 2시 전남대 후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1987'을 나란히 관람할 계획이다.

전남대 6월 항쟁 동지회 준비위원회는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준비위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24석 규모의 상영관을 통째로 빌린 뒤 학생운동을 주도한 인

사와 민주세력 인사들을 초대해 무비 데이를 가질 예정이다.

강 전 의원은 1985년 전남대 삼민투(민족·민중·민주) 위원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최 청장은 1986년 전남대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지낸 뒤 '87항쟁' 당시 민주화 투쟁으로 구속수감됐었다. 민 청장은 전남대 민주동우회 회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오고 있다.

이들 3명은 시차를 두고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며, 나란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례적이다.

더욱이 지역 정가에서는 세 후보 간 정책적 연대, 나아가 후보 단일화론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 이어서 단체 관람을 두고도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다.

셋이 힘을 모으자고 소위 '도원결의' 설이 수개월 전 나온 회자된 상황에서 지난해말에는 강 전 의원이 삼자연대를 시사하는 '삼발이론'을 꺼내 들어 어떤 식으로든 세 후보가 손을 잡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희 측은 "입을 뗀 시절 학생운동을 주도했거나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데 동참했던 이들과 '시대정산'에 맞는 삶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행사일 뿐"이라며 지나친 정치적 해석은 경계했다.



김복동 할머니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다.

## 유승민 "박지원, '빚덩어리' 발언 사과했다면 받아들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4일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바른정당을 '빚덩어리'라고 표현한 것에 사과한 데 대해 "제대로 사과를 했다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면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한 시사예능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 탓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국민의당이 빚덩어리를 끼안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이 말한 빚덩어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바른정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박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사과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른정당이) 국민에게 빛이 없다고 하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